

일주문



전율장병 지장기도 회향
부산 내원정사 주지 정연 스님은 6월 25일 '순국선열 육해공군 전몰장병 순직경관 호국영령 및 선망부모 천도 49일 간 지장기도' 회향대법회를 봉행했다.



남북 결식이동 후원행사 개최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장 법타 스님은 6월 21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창립 15돌을 맞아 남북한 결식이동지원을 위한 후원행사를 개최했다.



지장기도·고승대법회 개최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은 7월 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지장 100일 기도 및 고승대법회'를 개최한다. (051)508-3636



복지재단 설립 9주년 기념법회
진각복지재단 이사장 최정경 정사는 6월 29일 진각종 종인원 아의잔디밭에서 법인설립 9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2)942-0144



어르신 돕기 일일 찻집 행사
대구 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은 6월 27일 관음사 공양간에서 '찻 좋은 인연-홀로 어르신 돕기 일일찻집'을 개최한다. (053)474-8228



6.25참전 호국 영령 위령제
단양 금수사 주지 해광 스님은 6월 23일 금수사 경내에서 '6.25 참전 호국 영령 위령제 및 유공자 경묘잔치'를 개최했다.



'금강경 육조해' 출판기념법회
부산 화명선원장 무거 스님은 6월 15일 화명선원 대법당에서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강경 육조해> 출판 기념대법회를 봉행했다.



육천사암연 제4대 회장 선임
육천 대성사 주지 해철 스님은 6월 20일 열린 육천불교사암연합회 임시총회에서 제4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2년이다.



화첩 발간 기념 작품전 개최
선묵화가 김정배 화백은 <세상의 모든 달마> 화첩 발간을 기념해 7월 1-31일 인사동 중앙미술관에서 작품전을 개최한다. (02)736-7445



생명나눔에 강연료 기탁
삼성증권 자산관리센터 우승택 센터장은 6월 18일 천안 보명사 '53선지식 초창대법회' 강연료 150만원을 생명나눔실천본부(사)장일면에 기탁했다.

“돈은 가치 있는 곳에 쓰여야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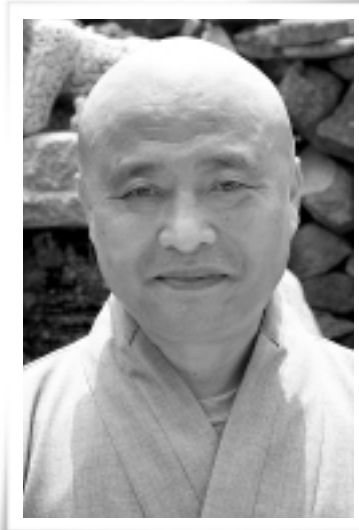
동국대·중앙승가대·불교 TV에 1억원씩 기부한 부산 영일암 현응 스님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생명을 잇는 간절함이지만, 물에 빠져 고생한 사람에게는 원수와 같습니다. 돈이란 것도 마찬가지지요. 꼭 필요한 곳에 바르게 쓰일 때 돈의 가치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동국대와 중앙승가대, 불교TV에 각각 1억원씩을 기부한 부산 영일암 주지 현응 스님(사진)을 6월 20일 만났다. 기자와의 인터뷰를 한사코 거부하던 현응 스님은 “큰스님들께 누가 뭘까 걱정”이라며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영일암 주변이 관광단지로 조성되면서 지급된 보상금의 바른 회향처를 고민했다”며 “건물불사 보다는 불교의 과제인 인재양성, 포교 그리고 복지에 모두 회향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며 회향의 계기를 설명했다.

현응 스님의 회향은 단지 관광단지 조성이란 갑작스러운 행운만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15년 동안 매년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해 인재불사에 힘을 보탤고 불우이웃돕기와 환자를 위한 치료비 등도 꾸준히



모금했다.

“학생들이 어렵게 찾아오는 것이 걱정돼 수여식도 하지 않아 얼굴도 연락처도 모르는 학생이 대부분”이라는 스님은 “제가 바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정직·근면하게 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25년 된 허름한 가사, 굵은 실로 엮은 고무신과 양말, 작은 책장 하나가 세간의 전부인 스님의 방은 3평 정도의 크기에 전기불도 잘 들어오지 않아 어둡다.

“제주도나 해외 성지순례도 한번 가본 적이 없다”는 스님은 “핸드폰, 자기용, 컴퓨터 그리고 신용카드 같은 것이 없어도 부처님의 가르침만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며 활짝 웃었다.

법보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현응 스님은 “책은 땀과 같아서 감을 건너고 나면 짙어지고 갈 필요가 없는 것처럼, 책도 다 읽고 나면 간직할 필요가 없다”며 “책은 많은 사람들이 읽고 성장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아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쓰이면 된다”고 말했다.

“술에 취하면 깨어나지만 탐욕에 취하면 깨어나지 못한다”고 경계하는 스님은 “탐진치를 버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라고 회향의 삶을 당부했다.

하성미 기자

“불교 범패·작법무 익혀 의식시연 봉사활동 펼 것”

호국영령위령제 참여 우영욱 보살



“조국을 위해 신하한 호국영령들의 넋을 위로하는데 그동안 익혀 영산제 의식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인생을 회향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봉사행을 펼치겠습니다.”

현재 육천법음대학 가계반에 재학 중인 우영욱(67, 보현행·사진) 보살이 지난 6월 3일 육군 과학화전후후련단에서 열린 호국영령위령제에 참여하면서 밝힌 각오다.

고회를 바라보는 적지 않은 나이에 우 씨가 범패를 배우기로 결심한 것은 5년 전. 만학은 오히려 우 씨의 항학열을 북돋웠다. 양평 사나사 신도회 부회장이기도 한 우 씨는 육천법음대학을 다니는 3년 동안 무려 왕복 4시간에 걸친 통학도 마다 않았다. 단 한 번도 수업에 빠진 적이 없었다.

“앞으로 열심히 불교의 범패와 작법무를 익혀 뜻이 맞는 사람들과 봉사단을 조직해 양로원과 실버타운, 군부대 등을 돌다 니며 불교의 전통 문화를 알릴 계획입니다.”

김주일 기자



“양심 농어촌 희망 셋 살리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행림 스님

“양심 농어촌 희망을 살려야 합니다.” 개신교 최용호 목사, 가톨릭 황동국 신부와 2년간의 준비 끝에 ‘양심·농어촌·희망 셋 살리기운동본부’를 설립한 공동대표 행림 스님(김재행림사 주지·사진).

스님은 최근 전주시 서서화동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현판도 내걸었다. 오는 7월 1일에 친환경 무공해 식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http://sagaks.codns.com/86/)도 개통할 예정이다.

인터넷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에서는 김치, 장아찌, 반찬, 김, 야채, 곡물, 조미료, 건강식품 등 총 145개 품목이 판매된다.

출가 전 국내 굴지의 식품회사를 운영한 경력이 있는 스님은 “농촌에서 포교활동에 전념하다보니 농촌경제가 파탄일로에 있는 것은 정부정책에도 문제가 있지

만 농민들이 양심적으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가 막힌데 있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일부 상인들이 화학비료와 농약을 많이 사용했음에도 유기농식품이라고 속여 소비자들이 농민을 불신하게 됐다”며 “시민운동 차원에서 믿을 수 있는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선정해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역 중소도시의 대형할인점 설립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는 스님은 “재래상인과 영세 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형 할인점은 농촌을 더욱 힘들게 한다”며 “농촌 살리기운동에 관심있는 사람과 연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063) 547-3378

김원우 기자

천태종,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기원 합창제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6월 17일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종의회의장 조성, 세운 스님과 이형구 강원도 행정부지사, 김기열 원주시장, 이계진 의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기원 천태합창제'를 봉행했다. 합창제에는 천태종 연합합창단, 부부나 솔리스트 앙상블, 김영아 전통무용단 등이 출연했다.

김흥국씨, 승가원 홍보대사로 위촉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종범)은 6월 18일 법인사무국 강당에서 불자가수 김흥국씨의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홍보대사로 위촉된 김씨는 “승가원 장애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씨는 위촉식 후 승가원 장애아동시설을 방문해 장애아동들을 격려했다.

법주사, 탄성대중사 부도탑비 제막식



보은 법주사(주지 도공)는 6월 20일 대웅보전에서 진공당 탄성대중사 7주기 대례제와 부도전 준공식 및 탄성대중사 부도탑비 제막식을 봉행했다. 대중사 조실 천은 스님과 금요문도 운영위원장 월서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진여원, 제9회 호국영령 추모제 개최



조계종 직할 포교원 진여원(원장 남부터)은 6월 21일 화명신도시 내 제3근린공원에서 제9회 호국영령 추모식을 개최하고 보훈유가족 11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부산종교인명회의 상임대표 정각 스님은 “순국선열들이 뜨거운 조국애로 식민통치와 한국전쟁, 군사독재의 시련을 극복한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슴에 새길 큰 교훈”이라고 말했다.



부처님의 팔만 사천 법문 일체가 종교 이상의 진리요, 과학이요, 의학이고, 의술이다.



불법佛法은 의학이다
송담 澗澗 지음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조실이며 동국대학교 불교 역경원장이시고 (生佛)이신 월운대선사께서 책내용 모두가(인간들에게) 구구절절 약이 되는 감로수와 같다고(찬탄 하시었다)

신국판 | 319쪽 | 값10,000원

송담 스님이 온갖 질병과 괴질로 고통 받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사업이 부도가 나 패가망신하여 가정이 파괴되는 과정을 보면서 부처님의 법문으로 환자와 가정과 사업을 일으켜 주었다. 우리 인간들에게 지수화풍地水火風의 4대에서 각각 101가지씩 404가지의 병이 발병된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많은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였던 경험담이다.

문의 - 법화사 | 02)2612-3358

전화 : 02)335-7883 팩스 : 02)335-7858 전자우편 : babosae@kornet.net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물상·석담·석등·동물상·인물상·목불조각·수미단·조명물조각·목불조성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불교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의 소임을 다하려합니다. 제방의 대덕 큰스님들의 많은 가르침을 기다리겠습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계조각의 대가 현대불교조각예술원

전화 031)531-5349 / 전승 031)533-6289 / 휴대폰 010-7474-5349